

## 위에서 오래 머무는 초미세 약물전달체 나와

✎ 이시라기자 | ⓒ 승인 2021.11.10 20:40 | □ 5면

### 포스텍 한세광 교수팀 새 마이크로모터 개발

포스텍 연구팀이 위점막을 통과해 24시간 이상 위에 머물면서 약물을 전달한 후 완전히 몸 밖으로 배출되는 마이크로모터를 개발해 냈다.

포스텍은 한세광 교수팀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 점막을 뚫고 위 안에서 오래 살아남는 특징에 착안해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한 요소분해효소 추진 마이크로모터를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. 이 모터는 모터 표면의 요소분해효소와 요소(urea)가 반응해 암모니아 가스가 생성되면서 추진력이 생기는데 이때 위 점막의 수소농도이온지수(pH)가 높아져 모터 주변이 액화됨에 따라 점막 안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다. /이시라기자



이시라기자